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

미술 자료 수집의 살아 있는 역사

금요일의 사나이, 걸어다니는 미술 사전, 미술 114. 지난 30여 년간 '미술 자료 수집'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그에게 붙은 별명들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술 자료 박물관을 개관하고 미술 역사의 생생한 기록을 소장한 그의 라이프 스토리.





1, 2 280여 명의 작가별로 정리된 그의 스크랩북은 마치 한 작가의 역사를 기록한 것과 같다. 천경자와 김환기 선생의 작품들이 실렸던 잡지와 신문 스크랩에는 몇 년도 어느 매체에 실린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종로구 통의동 91-26번지에는 작지만 위대한 박물관 하나가 있다. 미술 역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미술 자료를 총망라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다. 지난해 개관 당시 각종 매체나 TV는 미술 자료 박물관을 연 그의 이야기를 다뤘다. 개인이 30여 년 간의 수집 활동을 통해 1만여 권의 자료, 18톤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모았다는 사실도 놀라울 뿐 아니라 작가별로 꼼꼼하게 수집해 스크랩한 자료의 전문화도 경이로웠다. 무엇이 그를 미술 자료 수집의 세계로 이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정리된 대한민국 현대 미술 자료를 볼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미술 만물 박사로 불리는 그가 수집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원화는 볼 수도 없었거니와 도록이나 전시회 팸플릿도 귀하던 시절에 그가 택한 것은 잡지였다. <여원>, <주부생활> 같은 여성 잡지에 한 달에 한 페이지 정도 실렸던 '이달의 명화'는 그를 매료시켰다. 청계천을 누비며 과일호를 구입해 한 장 한 장 그림을 모았고, 신문에 난 미술 관련 기사도 꼼꼼하게 모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스크랩만 하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의 걱정은 늘어갔지만, 그만큼 그의 미술 관련 자료는 풍성해졌다.

갤러리를 누비는 금요일의 사나이

본격적으로 미술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것은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자료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그가 얻은 별명은 '금요일의 사나이'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인사동과 동숭동 일대의 갤러리를 돌며 자료 수집을 했기에 붙여진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해지는 자료가 아니라 발품을 팔아가며 하나하나 구한 자료이기 에 더욱 의미가 있고, 애정도 컸다.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글을 쓰고, 통계 수치를 내면서 미술 자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그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고, 미술계에 대한 생각들도 표현하게 되었어요. 기고를 통해 미술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현실을 꼬집었다가 시말서와 사유서도 썼죠. 그래도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과 가나아트센터를 거쳐 2001년 12월,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었다. 한국 현대미술의 자료 정리와 정보 제공을 위해서다. 그의 홈페이지는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미술 자료 수집을 위해 움직이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마치 미술의 세계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핫라인처럼 미술과 관련된 최신의 뉴스는 물론 전시회 소식이 매일 업데이트된다. 무엇보다도 3300여 명이 넘는 미술계 인사들의 데이터는 그의 보물과도 같다. 이론가, 평론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의 이름과 출생년도, 전문 분야, 주소와 연락처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소중한 인명 사전은 올해 안에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달진 아트북 쇼핑몰(www.daljinbook.com)을 열어 미술 관련 도록과 서적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가 가장 아끼는 자료는 그의 집무실에 빼곡하게 꽂혀 있는 작가 280여 명에 대한 스크랩 파일이다. 그는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천경자 등 작가별로 도록과 팸플릿, 신문 기사를 모아 정리했다. 몇 년도 어디에 실렸는지 하나하나마다 그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는 A3 사이즈의 스크랩북은, 단연 그의 보물 1호다.

“한 명의 작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많지만 이처럼 방대하게 여러 작가의 자료를 모으는 경우는 드물지요. 과일호를 찾기 위해 청계천을 누비러 다니고, 한 장의 그림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잡지를 사서 스크랩을 했어요. 세월과 노력이 담긴 이런 자



자신을 미술 자료 수집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던 잡지 속 그림들. 한 컷의 그림을 오리기 위해 기꺼이 한 권의 책을 구하러 다닌 그의 열정이 놀랍다. 30여 년 동안 한국 현대 미술 자료를 수집한 그를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미술 사전이라고 부른다. 그림 하나, 책 한 권을 마주하면 몇 년도에 출간한 어떤 책인지, 누구의 작품이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모두 기억하는 그다. 미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수집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자료는 곧 근거이며 힘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오늘도 수집을 멈추지 않는다.



1 박물관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홈페이지 www.daljin.com에서 미리 자료 검색을 하고 찾는다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1만여 권의 단행본과 작가 화집, 100여 종 2500여 권의 정기간행물과 1만여 점의 팸플릿, 200여 권의 논문과 1970~1980년대 신문 주요기사, 60여 평의 박물관 안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자료들은 그의 역사와도 같다.

료는 아마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2002년부터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해 정기적으로 풍부한 미술 정보를 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칼럼을 통해 미술계의 현재를 짚어보고, 해외 예술에 대한 안내를 해주며 최신의 전시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8년째 발행하는 <서울아트가이드>의 광고 수익은 연구소와 박물관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기에, 이 잡지는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꿈, 미술자료정보센터

국내 최대의 미술 자료를 소장하고 박물관을 열어 미술 자료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그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바로 미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제대로 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정보센터를 여는 것. 미술 정보나 예술 자료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제 미술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나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그나마 체계적인 자료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많은 미술애호가들과 대중이 미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그는 미술의 메카, 갤러리의 거리인 인사동에 정보센터가 세워지길 바란다. 100여 평의 자료 박물관과 열람실, 홍보관, 북 카페로 구성된 미술정보센터는 국내 미술 행사의 홍보 창구이자 신뢰도 높은 미술 자료를 갖춘 정보센터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대형 비엔날레나 전시회는 지원, 홍보하면서도 미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미술 자료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국립근대미술관 아트라이브러리나 미국의 미술기록보존소, 프랑스의 퐁피두센터 학술기록자료관처럼 우리나라에도 수준급의 미술정보센터가 탄생하기를, 그는 고대한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전시품

서화협회보

개관 기념으로 열리는 '미술정기간행물' 전시회에서 만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잡지인 <서화협회보(書畫協會報, 1921, 18×26cm), 미술 전문 기사를 다루는 정기간행물이지만 아쉽게도 곧 폐간되었다.



신미술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월간지로 기록되어 있는 잡지. <신미술(新美術, 1956, 17.6×25.2cm), 1956년 9월 창간호가 전시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인화집

한국 인상주의 화품을 정립한 두 화가 오지호, 김주경의 회화와 미학, 예술론을 담고 있는 <이인화집(二人畫集, 1938, 27.2×33cm), 한국 최초의 원색 도판 화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History of Korean Art

임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미술사를 강의했던 독일인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의 저서로 1929년 발행되었다. 우리나라 건축, 조각, 탑, 회화 등 510여 점의 유적 및 유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